

AIDS 편견과 차별

단지 구호만으로 넘을 수 없다



김명훈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
팀장, 서강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대우교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를 받아 애굽으로 보내질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징을 구
했고, 그래서 그의 손이 문둥병
으로 하얗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
에 나타나는 문둥병에 대한 최초
의 기록이다. 이스라엘 광야를

여행중일 때, 미리암은 모세를
거스르다가 문둥병에 들렸으며, 이스라엘 왕 중에 웃시
야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기록
도 있다. 또한 본문에서는 율법의 규례로 문둥병을 다루
고 있는데 이는 성경이 그만큼 이 병에 대해 비중을 두
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병의 잔혹함과 강한 전염성에 기
인하는 회피 때문에 이 병을 저주받은 천형으로 여기기
도 하였다.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
기도 한다. 미국의 과학저술가인 아노 카렌은 '전염병의
문화사'에서 전염병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
쳤는지를 밝히고 있다. 아테네의 황금시대는 홍역과 두
창으로 막을 내렸고, 신대륙의 원주민을 몰살시켰으며,
러시아 정벌에 나선 나폴레옹은 발진티푸스로 50만 대
군을 잃고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1918년에 기승을 부렸
던 인플루엔자는 전세계에서 약2,000만명을 희생시켰으
며, 현재까지도 10~40년 주기의 대유행으로 수많은 인
명을 앓아가고 있다.

작은 쥐가 옮긴 역병 '페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인류를 희생시켰다. 서방 제국을 건설하려던 동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도 결국은 페스트로 인해 실
패했고, 페스트가 기승을 부리던 절정기에는 콘스탄티
노플에서만 하루에 1만명씩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은
남기고 있다. 몽골의 세계 지배로 몽골을 통해 페스트는

유럽과 중국으로 퍼져 14세기동안 유럽에서는 인구의
1/3이 희생당했고, 중국에서도 몽골의 통치기간동안 전
쟁과 페스트로 인해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현대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는 1980년대 이래
로 희생자를 가장 많이 내는 감염성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과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한해동안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310만 명에 달했으며 500만명이 에이즈 바이러
스(HIV)에 신규 감염돼 전세계 HIV와 에이즈 환자는
4,20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류역사상 문둥병,
페스트, 에이즈 등은 치명적이며 혐오스러운 외모를 동반
하며, 버림받은 신의 저주로 인식되기도 하여 이러한 전
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 일반인들로부터 회피당하
거나 차별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일말의 공통성이 있다.

에이즈에 관한 한 감염인 모두가 피해자이고 이젠 지
극히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HIV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감염인들에 대한 물이해로 인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은 감염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살
(coming-out) 수 없도록 하여 결국은 HIV 감염을 더욱 확
산시키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2002년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UNAIDS에서 제시한
구호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이다.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와 계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감염인들은 에이즈 환자로 전환되기 전까
지는 사회활동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의 사회적
역할강화(Social Role Valorization)를 지향하는 사회참여의
보장과 시민권 보호 차원의 생활보장으로 생계의 위협을
제거하는 제도적 보호도 필요하다. '편견과 차별'은 단지
구호로 넘을 수는 없다. 감염인들의 보호와 사회참여 보장
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계몽이 병행되어야 한다.